

대한민국국군의대이라크파병반대결의안

의안 번호	2105
----------	------

발의연월일 : 2003. 2. 17.

발 의 자 : 안영근 · 김원웅 · 김홍신
김희선 · 박명환 · 배기운
송영길 · 이미경 · 이호웅
정범구 · 최용규의원(11인)

주 문

지난 2월 10일 NATO는 미국이 요청한 ‘이라크전 지원안’을 부결시켰다. 프랑스, 독일, 러시아는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공동선언을 발표했고, 이라크 또한 UN의 무기사찰에 적극 응함에 따라 이라크 전쟁이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석수 국무총리는 10일 국회에서 “이라크파병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하였다. 미국이 파병을 요청하기도 전에 전쟁을 돕겠다는 총리의 발언을 우려한다.

강력한 반전평화운동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다. 맨몸으로 전쟁을 막기 위해 이라크로 향한 미국시민들과 ‘한국이라크반전평화팀’, 그리고 전세계 평화운동가를 지지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고, ‘반전평화운동’은 한반도 평화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

한반도에도 전쟁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미국 부시대통령과 강경론자들이 두 개의 전쟁을 거론하고 있다. 우리는 '반전반핵평화운동'으로 북핵위기를 슬기롭게 헤쳐나가야 한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한반도에서 전쟁은 없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미국과 이라크의 관계도 평화적인 방법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한반도에 살고 있는 우리는 '이라크 파병'을 얘기할 것이 아니라 '반전평화'를 외쳐야 함을 천명하며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대한민국 국회는 세계평화를 위협하는 어떤 전쟁에도 반대한다.
2. 대한민국 국회는 이라크 파병 반대가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임을 확신하며, 대한민국 국군의 이라크 파병을 반대한다.

제안이유

강력한 반전평화운동만이 전쟁을 막을 수 있고, 이라크 파병 반대가 세계평화를 위한 실천이자 한반도 평화를 위한 의지임을 확신함.

이라크에 대한 평화적 사태해결을 촉구하는 국제사회의 움직임에 발을 맞추어 이라크파병반대를 통한 반전평화를 촉구함.